

만년꿀씨의 기적...광주도시공사 창단 첫 준PO 진출

핸드볼 코리아리그 4위 수성...남은 경기 상관없이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
오세일 감독, 강경민·원선필 영입 공격력 강화...김지현 등 선수 육성 성과
9년간 12승 그친 팀의 놀라운 변신...근성 살아나며 올해 7승 '시즌 최다승'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10년 창단 이래 후 최초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광주도시공사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작은 '기적'으로 통한다. 창단 이래 9년 동안 12승에 그친 팀이 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24일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리그 1위 부산시설공단에 28-30으로 패했다.

현재 승점 18점(7승 4무 5패)으로 리그 4위에 랭크돼 있는 광주도시공사는 컬러풀 대구가 이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함에 따라 따라 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2일 대구를 37-25로 꺾고 한시즌 최다승 기록을 7승으로 늘렸다.

광주도시공사는 리그 1위 부산과 경기에서도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양 팀은 전반전 시작부터 팽팽하게 접전을 보였으나 부산시설공단의 맹공격과 골키퍼 오사라의 선방으로 15-20으로 광주도시공사가 5점을 뒤지며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5점차에서 1점차까지 점수를 좁히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이미 돌풍을 예고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라운드로 축소된 지난 시즌 4승3무7패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만년 꿀씨에서 환골탈태한 원동력은 리더십이다.

오세일 감독은 2019년 5월 지휘봉을 잡고 팀을 리빌딩했다. 오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 인천에서 수영강사로 일을 하고 있던 주포 강경민을 설득해 코트에 복귀시켰고, 국가대표 출신 원선필을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했다. 강경민은 현재 리그 득점 1위(159골)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경기에서는 리그 개인통산 19번째로 500득점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올해 국가대표출신 손민지와 경남개발공사의 핵심 멤버였던 정현희를 새로 영입해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선수 육성도 빛을 보고 있다. 지난 리그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김지현은 광주도시공사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한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은 근성있는 플레이어로 변신했다. 예전의 패배의식은 자취를 감췄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7일 삼척시정전에서 전반전을 7-11, 4점차 뒤진 상태로 끝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후반전에서 11-7로 전세를 뒤집고 18-18,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24일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과 경기에서 슛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배드민턴 안세영 2개 대회 연속 동메달

김소영-공희용 태국오픈 복식 우승

여자 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삼성생명)은 결승 진출에 실패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안세영은 광주체고를 졸업한 뒤 올해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동메달을 땀다.

배드민턴 여자복식 콤비인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을 꺾고 새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6위 김소영-공희용은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토요타 태국오픈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을 2-0(21-18 21-19)으로 꺾고 우승했다.

김소영-공희용은 2019년 10월 코리아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코리아오픈 우승 때도 결승전 상대는 이소희-신승찬이었다.

김소영-공희용과 이소희-신승찬의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좁혀졌다.

김소영-공희용은 지난주 요넥스 태국오픈 공동 3위로 동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주 금빛 스매



안세영이 지난 23일 열린 태국오픈 배드민턴대회 4강전에서 스페인의 카를리나 마린을 상대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를 날렸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올해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한 안세영은 4강전에서 세계랭킹 6위 카를리나 마린(스

페인)에게 0-2(19-21 15-21)로 패했다.

안세영은 지난주 요넥스 태국오픈 4강전에서도 마린에게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동메달에 머물렀다. 안세영과 마린의 상대 전적은 1승 4패로 벌어졌다.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첫 팀 통산 700승

울산 현대모비스가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팀 700승 고지에 올랐다.

현대모비스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삼성과 원정 경기에서 81-6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팀 700승(547패)을 가장

먼저 달성한 구단이 됐다. 현대모비스에 이어서는 창원 LG가 623승으로 2위다.

원주 DB는 전신인 나라, TG삼보, 동부 시절을 모두 합할 경우 687승이지만 동부가 TG삼보를 인수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454승, 나래부터 TG삼보 시절까지 233승으로 구분된다.

전주 KCC 역시 전신 현대 시절을 더하면 662승

인데 현대 시절의 124승은 별도 집계된다.

최근 5연승을 내달린 현대모비스는 19승 13패를 기록, 전날까지 공동 2위였던 고양 오리온(18승 13패)을 3위로 밀어내고 단독 2위가 됐다. 1위 전주 KCC(23승 8패)와는 4.5경기 차이다.

현대모비스는 장재석(14점), 함지훈(13점), 룡(13점) 등이 많은 득점을 올렸다.

아이제야 히스가 16점으로 분전한 삼성은 최근 3연패, 홈 경기 5연패 늪에 빠졌다. /연합뉴스

아깝다 윤성빈...스켈레톤 월드컵 은메달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이 시즌 두 번째로 나선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윤성빈은 22일(한국시간) 독일 쾨니히스제에서 열린 2020~2021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7차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39초92를 기록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알렉산더 가스너(1분39초88·독일)가 지난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6차 대회에 이어 시즌 2번째 월드컵 우승을 일궜다.

동메달은 알렉산더 트레티야코프(1분40초01·러시아)의 차지였다.

윤성빈은 자신의 시즌 첫 레이스인 지난 6차 대

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입상했다.

윤성빈은 29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리는 최종 8차 대회에서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우승에 도전한다.

1차 시기에서 가장 빠른 4초55만에 스타트를 끊은 윤성빈은 주행에서도 여세를 몰아 49초90에 결승선을 통과, 1위에 올랐다.

윤성빈은 2차 시기에서도 4초58로 스타트 1위를 기록했다. 주행에서도 가스너보다 빠른 코스를 통과하는 듯했으나,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곡선구간에서 가속이 떨어지면서 아깝게 금메달을 내렸다. /연합뉴스

팔라존, 프로당구 PBA 첫 '퍼펙트 우승'

32강부터 한 세트도 안줘...상금 1억

'스페인의 3쿠션 강자' 하비에르 팔라존(33·사진)이 프로당구 PBA 사상 처음으로 '무실세트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다.

팔라존은 지난 23일 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크라온해태 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강민구(블루원리조트)를 세트스코어 4-0(15-6 15-10 15-11 15-9)으로 눌렀다.

팔라존은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한 세트도 지지 않고 PBA 첫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1억 원도 손에 넣었다.

팔라존은 이번 대회 전까지 3위가 최고 성적이었으나 무서운 기세로 챔피언 자리에 우뚝 섰다. 팔라존은 에버리지 3.75를 기록하며 4이닝 만에 1세트를 먼저 차지했다.

그는 2~3세트에서도 에버리지 2.5를 기록하며 세트스코어 3-0으로 크게 앞서갔다.

연이어 4세트서 승리를 거둔 그는 한 세트를 평

균 5이닝 만에 차지하고 평균 에버리지 2.857을 기록했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회(2005년, 2008년, 2009년) 우승한 그는 '2019 블랑켄베르크 3쿠션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다.

팔라존은 "다른 직업과 당구를 병행해왔으나 당구에 전념하게 해준 와이프에게 감사하다"며 "작년에 아빠가 되었는데, 올해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가족 생각이 더 간절히 경기에 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소울 |
| 2관 | 소울 |
| 3관 | 아이 엠 우먼, 윈더 우먼 1984 제이티 르로이 |
| 4관 | 소울 |
| 5관 | 소울, 런 |
| 6관 | 소울 |
| 9관 | 모추어리 컬렉션, 케넥트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
| 7관 씨네키움 | 소울, 도굴, 이웃사촌 |
| 8관 씨네키움 | 소울, 신과함께-연과연, 이웃사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